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 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피고 A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㉔ 위와 같은 합의 결정문에도 피고 A이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탈리아의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I 10 버전의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국의 소비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A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탈리아 행정법원도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그 상급심 법원인 국사원(Consiglio di Stato)에서는 피고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탈리아 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위 국사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은 '이 사건 업데이트가 C의 작동에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속도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답변하기 어렵다. 피고 A이 계획되거나 예상된 진부화 또는 운영체제 내 구조적 결함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 또는 기기의 작동에 해를 입히는 생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⁸⁾ 결국 위 국가에서의 벌금 부과처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이 영구적·비가역적으로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러시아에서 이 사건 C 사용자가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8) 다만 해당 감정보고서에는 '운영체제의 에너지 관리(배터리, 소비 등)와 관련한 자세한 문서는 제출되거나 온라인에서 공개되지 않아 그에 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감정인의 결과 분석에 일정한 제한점이 있음이 나타나 있다.